

아시아나항공 매각

금호, 위기의 그룹 살리기 ... 채권단 자금지원 조건
지역민들 “호남 대기업 명맥 사라질까 안타깝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그룹을 살리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그룹은 경영이 정상화되더라도 증권기업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뿌리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꼭 이 길 밖에 없는 것이냐”며 불안과 아쉬움을 쏟아냈다.

14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매각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그룹 핵심 자산인 아시아나항공을 팔아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등을 살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떨어져나갈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초 이사회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금호고속이 45.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9일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맡길 테니 채권단에서 500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자금계획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례적으로 다음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안 수용을 거부했다.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주 채권단과 재협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없이 오는 25일 6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를 맞을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조기 상환돼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하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것은 물론 금호고속, 금호산업

의 활로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평가다.

채권단은 추가 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당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요청했던 5000억원을 영구채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침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구채 지원 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출자전환 옵션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과 이르면 이번주 초 수정안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이 이뤄진 후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각 절차를 시작한다. 구매매출 방식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이후 새로운 주인이 8000억~1조원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주 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포함한 수정 자금안을 이번주 초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며 “MOU가 체결되는 대로 구체적인 자금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내일(15일) 아시아나항공 자구안에 대해 회의를 한다. 결정이 되면 최종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에서 분리된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호남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발전해온 대표적 향토기업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상공인은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그룹은 증권기업으로 전락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매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매각이 진행되면 아시아나에서 금호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 민심은 변화를 원한다



21대 총선 1년 앞

자존심·미래 창출할 인물 기대
선거제도 개편 등 변수 많아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호남이 '민주개혁 진영의 심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만들어 내는 등 정치적 역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이 총선 판을 흔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주요 원인은 호남 민심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당의 '자멸'로 모아진다. 국민의당이 제3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하면서 정치적으로 몰락, 호남 민심은 정권 창출에 성공한 민주당으로 이동한 현실이지만 저변에는 당을 떠나 호남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한 자릿수 지지율

에 그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대를 기록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대약진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호남 석권'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승을 단언하기도 어렵다. 정치적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변수가 있다. 선거제도가 개편된다면 정치권의 지역변동이 불가피하다. 호남에서 정의당의 약진이 가시화될 수 있고 평화당과 미래당도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생성될 수도 있다. 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제3지대론'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적 생존이 걸려있는데다 어떠한 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변수다. 최근 호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90%대에 이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70%대를 넘는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70%대가 무너지고 민주

당 지지율은 50%대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어려운 민생경제와 정책 국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되는 인사 참사 등으로 여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자체 동력보다는 문 대통령의 지지에 연동되고 있어 취약성이 크다. 한 번 무너지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대 변수는 호남 민심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자체적 역동성이다. 우선 호남 민심은 과거에 비해 변방으로 밀려난 호남 정치 현실에 대한 정치적 갈증이 크다. 또 호남 정치권이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문(친문재인) 종속 구도에 갇혀있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호남의 자존감과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증과 우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떠나 '세대교체' 폭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호남 민심이 지난 총선은 물론 과거 민주당 독점 구도에서도 최소 3~4명의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해 왔다는 점에서 동력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정치를 이끌어 왔던 중진 의원들의 내년 총선 생존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호남 정치 몰락의 책임론과 세대교체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시는 지난 12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목포 식재료와 음식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맛'이라는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맛의 도시 목포’

서울서 선포식 ... ‘목포 맛 관광상품화’ 본격 추진

전통의 맛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맛의 도시 마케팅을 통한 '목포 맛의 관광 상품화'가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목포시는 지난 12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목포 식재료와 음식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맛'이라는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미 인정받고 있는 맛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 재료와 음식을 널리 알릴 '맛'상표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왜 목포가 맛의 도시인가?'를 주제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의 당위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날 행사에는 목포에서 공수한 식재료를 이용해 선보인 이충후 셰프의 '홍어 스테이크', 임정식 셰프의 '낙지 버거', 이형준 셰프의 '민어 파이', 김성운 셰프의 '우럭 부아베스' 등 새 요리가 관심을 끌었다. 또 이날 선포식에서는 목포시가 맛의 도시 목포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3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으뜸 맛집' 100곳이 발표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의 음식은 목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이다. 이런 맛이라는 자원을 브랜드화 해서 마케팅하고 목포의 맛의 진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맛의 도시 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배우 최불암 씨는 "맛의 도시"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없지만, 세계화해서 여러 나라에서 목포를 찾고 그 힘으로 또 더 맛있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이 끝난 이후 시청 공직자 60여명은 3개조로 나누어 서울시청 광장,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용산역 등 3곳에서 가두 캠페인을 갖고 목포 맛 지도와 황사마스크 등을 배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CREZIA
MUSIC & ARTISTS



20th Anniversary
YUHKI KURAMOTO CONCERT

유기쿠라모토 콘서트

당신과 함께한 스무번째 봄이 옵니다

진심
연기



2019년 5월 24일(금) 오후 7:3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출연 아티스트 | 유기쿠라모토 (Pf) / 콰르텟-김지운 (Vn) | 이윤하 (Vc) | 강신일 (Cl) | 김일지 (Ft)

제작 CREZIA MUSIC & ARTISTS 주최 광주일보사 주관 한국문화재단 후원 티켓 R석99,000 | S석77,000 | A석55,000 | B석33,000 예매 인터파크 티켓 062-220-0541